

## 자유의지에 드러나는 교육적 의미: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에서

김은우(성균관대학교 교수)

### I. 서론

아우구스티누스는 인식의 위계구조를 '인식'과 '의지'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인식의 위계구조가 고차적인 지식으로 상승하는 것에만 강조하게 되면 또 다른 지식교육으로 치우칠 수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자유의지론』에서 인간의 인식을 인식자체에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라는 측면을 함께 부각시켜서 올바른 대상을 향유하게 한다는 점이다. 특히 온전한 교육은 인식과 의지의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함을 드러낸다(김은우, 2016: 87-88). 이런 차원에서 '의지'에 대한 주제는 교육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인간은 지성을 통해서 진리를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이 진리를 바라만 본다고 해서 진리에 따라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의지가 발휘되는 것은 인식 하는 대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식한 것을 의지는 행동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인식한 것과 다르게 행동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의지는 우리의 인식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한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자유의지는 신으로부터 부여 받은 선물이다.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인식만큼이나 독특한 의미를 갖는다. 자유의지는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고, 그 의지의 주체는 자신이 된다. '의지'는 모든 인간에게 있지만, 모두가 '선한' 의지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선한 의지와 자유의지를 구분하고 있다. 선한 의지는 그 자체로 선한 것으로서 신의 속성에 속하는 것이면서 그 속성으로부터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 인간은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부여받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도덕적 신념에 비추어 옳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도덕적 신념에 비추어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동시에 나쁜 일을 선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유의지는 인간이 선한 행동뿐만 아니라 악한 행동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유의지를 신의 선물이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인간의 삶에서 드러나는 자유의지의 문제를 고찰하려고 했다(Ilhan Dilman, 1999: 71-72).

자유의지는 행하는 사람에 따라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의지에 따라 행해지는 악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과연 사람들은 자신이 결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는가? 특히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유의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자칫 잘못된 행위에 대해 책임의식이 약화 되고 있지 않은지 자문해봐야 한다. 따라서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은 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유지론』에서 자유의지의 의미와 책임에 대한 답을 기독교(종교)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자유의지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이 자유의지 안에서 저지르는 악에 대한 책임론의 문제이다. 우리가 자유의지 안에서 저지르는 악에 대한 책임은 과연 신에게 전가될 수 있는가이다. 둘째, 자유의지는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는가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자유의지에 드러나는 교육적 의미를 검토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에서 자유의지의 개념과 그에 따라 나타나는 자유의지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자유의지의 측면에서 드러나는 교육적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 II. 의지의 개념

### 1. 선한 의지의 의미

에보디우스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묻는다. 선한 의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게 살고 최고의 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 희구하는 의지이다”(성 염 역, 123).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의지는 선한 의지(bonam voluntas)와 악한 의지(mala voluntas)로 구분되는데, 선한 의지가 “바르고 정직하게 살기를 희구하는 의지” 라면, 악한 의지는 선한 의지를 사랑하지 않는 의지이다(Augustinus, 388/ 성염 역, 2005: 127-131). 선한 의지에는 복된 삶이 따라오고, 악한 의지에는 비참한 삶이 따라오게 된다(Augustinus, 388/ 성염 역, 2005: 137).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모든 정의로운 것은 선한 것이다(Augustinus, 388/ 성염 역, 2005: 151). 따라서 선한 의지는 그 자체로 선한 것이고, 정의이며, 좋은 것의 표본이며, 자유의지가 올바르게 행위 되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의지를 이성과 욕망 사이에 위치시켰다(Siedentop, Larry, 2014/ 정명진 역, 2016: 170). 왜냐하면 의지가 이성에 따라 신을 지향하게 되면 선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욕망을 따르게 되면 악한 행위를 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지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한 의지를 지니고 있음을 고백하는 바이다”(Augustinus, 388/ 성 염 역, 2005: 123).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는 자유의지를 가리키는 것이고, 선한 의지<sup>1)</sup>는 선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선한 의지에 따라 사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적 신앙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가 믿기로 사람이 하느님께 참으로 완전하게 창조 받았고 행복한 삶에 놓여 있었는데, 자기의 의지로 스스로 타락하여 사멸하는 인생마저 환난으로 추락 했습니다”(Augustinus, 388/ 성 염 역, 2005: 119). 자기 의지라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는 의지이면서 동시에 정욕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선한 의지에 대립되는 것은 정욕이다(Augustinus, 388/ 성 염 역, 2005: 129). 이처럼 정욕은 선한 의지에 상반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가 선

---

1) 선한 의지는 선의지로 사용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지론』의 선한 의지의 번역을 따라 사용한다.

하게 산다는 것은 정욕에 저항 하는 것이고, “자기의 선한 의지를 애호하는 사람이”되는 것이다(Augustinus, 388/ 성 염 역, 2005: 129, 131). 물론 모든 사람이 선한 의지를 소유하고 영원히 살아가기를 희망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비록 우리가 선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선한 의지를 갈망하고 자신의 악한 욕망을 절제해야만 한다. 우리는 선한 의지를 통해서 의지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마치 선한 의지가 자유의지를 속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과연 신은 선한 의지를 통해 의지에 자유를 부여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점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선한 의지와 자유의지의 관계를 역설적으로 보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선한 의지를 지니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것에 상반되는 것들에 저항 하는 사람이라면 또한 누구에게든 악을 바랄 수 없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선한 의지를 중시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다(Augustinus, 388/ 성 염 역, 2005: 129).

선한 의지는 단지 인간의 인식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 즉 인간에게 좋은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최고선으로서 선한 의지를 추구할지라도 모두 동일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김은우, 2016: 62).

인간은 지성을 통해서 진리를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의지’의 전환이다(Augustinus, 413-426/ 조호연, 김종흡, 2007: 404). 이성만 회복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의지도 회복되어야 한다. 의지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올바른 의지를 발휘하기 힘들다. 따라서 인간의 인식은 자연스럽게 의지의 문제와 결부된다. 즉 인식은 이성의 독자적인 열매가 아니라 의지와 의 연합적인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양명수, 1999: 117). 선한 의지는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 2. 자유의지의 의미

자유의지는 학문의 세계에서 다루는 논제 가운데 많이 언급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자유의지는 “도덕적인 결단이나 도덕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행위자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이 신에 의해 창조될 때, 신으로부터 부여된 의지”를 의미한다(안건훈, 2006: 16). 그 만큼 자유의지는 다양한 의미에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덕 윤리에서 자유의지는 의지의 나약함을 극복할 때 올바르게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의지는 환경적 영향을 받고 생각한 것과 반대로 행동을 하거나 결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의지가 나약해서 항상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 의지의 나약함은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이다. 의지의 나약함이 일어나는 원인은 행위를 욕구와 믿음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으로 보기 때문이다(장동익, 2017: 300). 따라서 전통적 덕 윤리에서 자유의지는 올바른 행위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욕구와 믿음의 관계에서 선택의 문제이다. 자유의지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나약한 의지를 극복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덕 윤리에서는 욕구와 믿음의 상호작용으로서 행위 실천이 행위자의 의지의 나약함에 의해 영향 받지 않으려

면 또는 그러한 행위 실천이 올바로 이루어지려면 행위자에게 자제력의 덕과 숙고하는 능력을 요구 한다”(장동익, 2017: 301). 이처럼 자유의지는 욕구와 옳은 행위 사이에서 행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내적 힘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의지는 행위자가 어떤 행동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욕망을 구현시키는 능력이기도 하다 (Ilhan Dilman, 1999: 90). 따라서 자유의지는 하고자 하는 욕구를 위해 행동하게 만드는 원동력이고, 행위자의 의도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실천영역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유의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유의지를 설명하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첫째, 자유의지는 그 자체로 선한 것을 지향한다. 자유의지의 발원은 선한 의지에서부터이다. 자유의지는 “불변하는 선에 결속하는 정신의 자세야말로 인간의 고유한 선이고 첫째가는 선이다. 그리고 이 선에 모든 덕성들이 들어 있으니 이것들은 아무도 악용을 못 한다”(Augustinus, 388/ 성 염 역, 2005: 255, 261). 이런 자유의지의 성격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둘째, 자유의지는 선한 것을 선택하거나 악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이는 자유의지는 선택하는 사람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의지는 중간선이기 때문에, 의지가 불변하고 공통된 선-고유한 선이 아니라 공통된 선을 말 한다”(Augustinus, 388/ 성 염 역, 2005: 261; 김성진, 2002: 206). 이런 자유의지 성격은 선택적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자유의지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위 하는 의지라고 정의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어떤 행동을 해도 무방하거나 혹은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처럼 비추어질 우려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자신이 행동한 것의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을 드러낸다. 자유의지는 선한 것에만 국한 되는 것도 아니고 악한 것에만 국한 되는 것도 아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서 행하는 것은 행위자의 몫이라는 것이다. 『자유지론』에서 에보디우스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자유의지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 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이 듭니다만,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 굳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야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Augustinus, 388/ 성 염 역, 2005: 145). 이 질문에서 자유의지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거나, 범죄도 없었을 것을 드러낸다. 이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 인간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신 것은 범죄를 저지르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Augustinus, 388/ 성 염 역, 2005: 153). 자유의지가 주어진 이유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사람이 올바르게 살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분이 왜 그것을 주셨어야 하느냐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는 이상, 만일 누가 범죄 하는데 그것을 이용한다면 하느님으로부터 징벌이 그에게 내리라는 것은 납득할만하다. (자유의지가 주어진 목적이) 올바르게 사는 데만 아니라 죄를 짓는 데도 있다면, (죄를 지었다고 징벌을 내리는 일은) 불의한 짓이 되리라. 그러한 목적으로 주어진 의지를 바로 그 목적에 사용했는데 별한다면 어찌 정의로운 징벌이겠는가? 그러므로 이제 범죄 하는 사람을 하느님이 벌하신다고 할 때는, “왜 너는 자유로운 의지를 내가 너에게 그것을 준 목적대로 쓰지 않았느냐?”고 하시는 말씀 아니고 무엇이라고 여기는가? 그 다음, 사람에게 의지의 자유 선택이 결여되어 있다면, 죄악은 별하고 올

바른 행실은 상주는 데서 우러나오는, 정의라는 선은 어떻게 되겠는가?(Augustinus, 388/ 성 염 역, 2005: 153).

만약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을 구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단지 자유롭게 결정하는 의지가 자유의지로 오해될 수 있다. 이러한 자유의지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측면에서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반드시 주어져야 하는 독특한 능력이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는 “자기규범”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자기 규범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수반되어 있다는 것이다(Ilhan Dilman, 1999: 73; Augustinus, 388/ 성 염 역, 2005: 117). 따라서 자유의지는 우리가 선한 행위를 지향할 수 있도록 목적을 부여해주는 동시에 선한 의지를 악용하지 않도록 자신의 행위를 비쳐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 Ⅲ. 자유의지의 문제

#### 1. 자유의지의 전향(轉向)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려하는 것은 악한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유의지는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공통된 선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유의지가 외적인 것으로 전향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의지가 공통되고 불변하는 선에 등을 돌려 배향(背向)하고 자기(것으로 정한) 고유한 선이나 외적인 선이나 열등한 선으로 전향(轉向)하는 경우에 악을 범한다. 의지가 자기 권세로 (독립하여) 존재하고자 할 때에는 자기 (것으로 정한) 고유의 선으로 전향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의 고유한 선이나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을 알고자 부심할 때에 외적인 선으로 전향하는 것이고, 육체의 정욕을 사랑할 때에 열등한 선으로 전향하는 것이다(Augustinus, 388/ 성 염 역, 2005: 255, 262-263).

자유의지가 독립하여 존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성<sup>2)</sup>이 (사물을) 지배하는 저 정상으로부터 끌려내려 오고 올바른 질서로부터 끌려내려 오는 것은 다른 무엇에 의해서도 아니요. 어디까지나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다(Augustinus, 388/ 성 염 역, 2005: 143). 그래서 의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의지는 지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의지가 독립하여 존재한다는 것은 “의지가 본래 지향해야 할 고귀한 가치와 영원한 대상들로부터 스스로 추락하여 자신을 욕망으로” 빠뜨리는 것이다(김성진, 2002: 205). 즉, 이성이 정욕에 지배는 받는 세상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성이 회복해서 신을 관조하는 것이 목적인데 회복되기 전으로 다시 회귀하

---

2)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성(ratio)보다 우월한 ‘회복된 이성’(mens), 즉 지성을 상정한다.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성을 비롯한 전인이 부패하였으며, 이성의 회복은 신앙, 즉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다. 이때 회복된 이성<sup>2)</sup>에 의한 지성적 인식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은 영원한 실재인 신을 제대로 인식하고 관조할 수 있게 된다(김은우, 2016: 4).

는 것이다. 이렇게 회귀한 의지는 열등한 선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유의지는 “진리와 지혜로부터 분리되어 비뚤어진 의지, 곧 열등한 사물들을 사랑하는 의지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Augustinus, 388/ 성 염 역, 2005: 229).

## 2. 자유의지의 오용

자연법칙의 지배아래에서 혹은 중세시대에는 인간의 자유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고 성급하게 판단하곤 했다. “인간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믿지만, 사실상 자유의지가 없으면서 그것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믿는 파리 한 마리에 불과하다”(Julian Baggini, 2015/ 서민아 역, 2017: 29). 이는 우리가 자유의지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여겨진다.

자유의지의 문제는 ‘자유(自由)’와 ‘자의(恣意)’의 해석에서 발생한다. 자유의 행사는 자유를 부여 받은 자의 의지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자유’가 ‘자의’와 구별되는 것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발휘되거나 자기로부터 비롯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안에서 선한 의지를 지향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백종현, 2014: 20). 자유의지가 오용되는 원인 중 하나는 자의적 해석에서 일어난다. 인간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를 행위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한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이 문제이다.

의지는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행위이다(Augustinus, 389-391/ 성염 역, 2011: 99). 라틴어로 의지라는 말에는 ‘intentio’와 ‘voluntas’가 있다. 이 둘의 의미는 차이가 있는데, intentio<sup>3)</sup>가 의도성이 강한 표현에 사용되는 반면, voluntas는 행위 주체의 일반적인 의사표현에 사용된다. 전자가 화자의 강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면, 후자는 화자의 자발성을 드러낸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유지론』에서 ‘voluntas’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 의지(voluntas)는 자발적인 행동과 그 행동의 원인이다. 의지가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특별한 동기가 필요하다. 그 동기는 인식의 행위만이 아니라 존재의 전환에 이르기까지 상관하고 있다(주영흠, 2014: 419). 존재의 전환은 시간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환 없이는 인식의 행위가 올바르게 전환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사용하는 ‘의지’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어떤 대상을 향하게 하는 ‘지향’적인 의미라면, 다른 하나는 그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동 주체를 의미하는 것이다(배성진, 2013: 13; 김은우, 2016: 61-62). 그래서 자유의지는 선한 것을 지향하는 목적과 행동 주체의 의지적 작용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자유의지는 행위 주체 내면에 규범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스스로 지켜가야 하는 의무가 따르는 것이다.

## 3. 자유의지의 전도(顛倒)

자유의지는 여러 가지 모순적 속성을 지닌 한 가지가 아니라, 하나 이상의 것, 각각의 다양한 속성을 지닌 하나 이상의 형태일지 모른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각기 다른 요소들

3) ‘intentio’는 ‘의지’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지향’ 내지 ‘지향성’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이는 단어의 의미가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주 ‘intentio’와 ‘voluntas’를 병행적으로 교차하여 사용한다(배성진, 2013: 1-4).

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Julian Baggini, 2015/ 서민아 역, 2017: 267). 각 기 다른 요소라 함은 자유의지의 의미에서 드러나는 특성들일 것이다. 그 특성은 자기 선택권, 의지의 나약함, 행위자의 의도 반영, 선한 것을 지향하는 속성 등을 들 수 있다. 그 속성 들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선택권에 대한 책임의식이다.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행위 하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행위자가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돌리는 것이 문제이다.

『자유지론』제1권 1장에서 에보디우스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악(mali)’의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묻는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악의 장본인은 “어느 한 사람이 모든 악의 장본인이 아니고 모든 악인은 자기 악행의 장본인이다”(Augustinus, 388/ 성 염 역, 2005: 73). 특정한 사람이 악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 악의 주관자가 된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는 선한 것이요 하느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주신 분이 그것을 주시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하기 보다는 그 좋은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질책해야 할 것이다”(Augustinus, 388/ 성 염 역, 2005: 255).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악과 자유의지의 책임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악과 자유의지가 전도(顛倒)될 우려 혹은 이미 우리 인식 안에 전도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악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논리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행하는 사람의 책임 문제이다. 예컨대 자유의지 자체는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악을 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이는 “누군가 사물을 악용한다고 해서 사물이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악용하는 사람이 비난”을 받는 것이다(Augustinus, 388/ 성 염 역, 2005: 144).

#### IV. 자유의지에 드러나는 교육적 의미

##### 1. 자유의지의 전환

자유의지에서 드러나는 교육적 의미는 배운 지식을 삶의 행위로 실천하는 것이다. 자유의지의 전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식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인식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추구하려 한 것은 신을 관조하는 것이었다. 그는 인간의 인식 안에 주어져 있는 ‘기억’을 통해서 분열되어 있던 왜곡된 인식을 신에 향하게 하는 것이었다. 인간은 기억을 통해 내면에 잔존하는 신을 발견할 수 있다(송병구, 2004: 142). 다만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뿐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영원한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자신의 삶의 뜻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으로 전환(coverion)”하는 것이라고 말한다(송병구, 2004: 143). 그는 이것을 ‘의지의 전환’이라고 표현한다. 이 의지의 전환은 인간의 인식과 행동에서 일어나야 한다. 우선, 인식의 전환이라 함은 보편적 이성에서 회복된 이성으로 신을 인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의지의 전환이라 함은 인식한 것을 삶으로 연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신의 뜻을 이해했다면 그 뜻에 맞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단지 삶의 일환으로 그치는 교육이 아니라, 신의 뜻을 따라 선한 의지를 드러내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처럼 의지의 전환은 인식과 행동 전반에서 행위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의지의 행위자로서 권한을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Augustinus, 386/ 박주영 역, 2010: 37;

김은우, 2016: 60).

우리 교육에서도 '자유의지'의 문제는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교육이 지식교육의 대안으로서 창의성 교육, 비판적 사고 등의 주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의 지식교육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교육이 지행합일(知行合一)의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2. 자유의지의 규범화

자유의지에서 드러나는 교육적 의미는 도덕적 신념에 비추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기 내면에 도덕적 신념을 규범화 하는 교육이 지향되어야 한다.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실재적 이면서 현실적, 규범적 의미를 갖는다. 자유의지가 실재적이라는 것은 의지의 주관자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현실적이라는 것은 어떤 배후의 영향에 따라 의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 있고, 규범적이라는 것은 선한 것에 비추어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소유한 자로서 도덕적 규범에 비추어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올바로 살도록 의지가 주어진 이상, 아무도 의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Augustinus, 388/ 성 염 역, 2005: 153).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의 원인을 우리 자신의 내면적 동기로 규범화 하고 있다. 자신의 행동을 다른 원인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교육이나, 부모, 친구 등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자신이 행한 잘못된 행동을 타인의 행동에서 배웠거나, 사회적 환경에서 배웠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악을 가르치는 것은 진정한 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다(김성진, 2002: 195). 이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에보디우스와의 대화에서 배움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통하지 않고서는 무엇을 배우지 못한다. 나는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선뿐이라고 여깁니다"(성 염 역, 2005: 73). 이 둘의 대화에서 악은 교육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배움으로 생각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도덕 혹은 윤리교육을 통해서 악한 행동에 대해 오랜 시간 배워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악한 행동을 타인의 모방을 통해 배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유의지에 대한 분명한 규범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자신이 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망각해서이다.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행위 하는 사람은 자기 내면에 도덕적 규범의 소리를 듣고 자유의지에 대해 저항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선과 악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선한 것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악에 이른다는 단순한 논리를 전개 했다(Ilhan Dilman, 1999: 86).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우리는 행동의 주체라는 의식을 자기의 내면에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행동의 주체는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권한이 있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결정하는 주체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 3. 자유의지의 책임의식

자유의지에서 드러나는 교육적 의미는 자기 의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부여받았다는 것은 행위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음과 동시에 악한 행동 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도 따른다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의지가 내 것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 내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로 악하게 행동하는 바를 나에게 돌리지 않으면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중략) 의지가 이리저리로 쏠리는 움직임이 자의적이에요 또 우리 통제력 안에 놓여 있지 않다면, 의지의 중추(中樞)를 돌려서 인간이 상위의 사물들을 향하더라도 칭찬받을 것 없고 하위의 것을 향하더라도 지탄받을 것 없습니다 (Augustinus, 388/ 성 염 역, 2005: 275).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는 자유의지에 주어진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유의지에 관한 도덕성의 기준은 규범화가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이 갈 수 록 책임의식이 결여 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마약관련 문제들이 많아지면서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의지를 남용하는 것이고, 타인의 권유에 순응했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못하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타인의 의지에 복종하는 결과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을 다른 것에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는 우리 현실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누구의 탓을 하는 것은 자기 내면의 비성숙한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유의지는 선한

## V. 결론

인간은 지성을 통해서 진리를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의지'의 전환이다(Augustinus, 413-426/ 조호연, 김종흡, 2007: 404). 이성만 회복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의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의지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의지의 전향에 대한 것이다. 이는 악한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둘째, 자유의지의 오용이다. 자유의지의 개념이 자의적 해석되는 것에서 자유의지의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다. 셋째, 자유의지의 선택에 따른 책임의 문제이다.

자유의지에서 드러나는 교육적 의미는 첫째, 자유의지에서 드러나는 교육적 의미는 배운 지식을 삶의 행위로 실천하는 것이다. 둘째, 자유의지에서 드러나는 교육적 의미는 도덕적 신념에 비추어보는 것이다. 셋째, 자유의지에서 드러나는 교육적 의미는 자기 의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성진(2002). 현대의 윤리적 상황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의지론. 『중세철학』8. 183-214.
- 김은우(2016).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과 교육』.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배성진(2013).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지향(intentio)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백종현(2014). 칸트에서 선의지와 자유의 문제. 『인문논총』71. 11-42.
- 송병구(2004).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서울: 한들출판사.
- 안건훈(2006). 『자유의지와 결정론』. 경기: 집문당.
- 장동익(2017). 『덕 윤리: 그 발전과 전망』. 서울: 씨아이알.
- 주영흠(2014).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와 교육』. 서울: 그리심.
- Augustinus. A. L.(389-391). De Vera Religione. 성 염 역(2011). 『참된 종교』. 경북: 분도출판사.
- Augustinus. A. L.(413-426) De Civitate Dei. Philip Schaff.(Ed.).(1956). 조호연.김종흠 역(2007). 『하나님의 도성』. 경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Augustinus. A. L.(388). De libero arbitrio. 성 염 역(2005). 『자유의지론』.경북: 분도출판사.
- Ilhan Dilman.(1999). Free Will-An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introduction-Routledge.
- Juilan Baggini.(2015). Freedom Regained: The Possibility of Free Will. 서민아 역(2017). 『자유의지: 자유의 가능성 탐구』. 경기: 스윙밴드.
- Siedentop, Larry.(2014). Inventing the Individual. 정명진 역(2016). 『개인의 탄생』. 서울: 부글부글.